

롯데월드의 모델인 엑소가 영상 촬영을 위해 파크 내를 달리며 즐거워하고 있다. 롯데월드는 아시아 시장과 젊은층 공략이라는 '두 마리 토끼'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 엑소가 속한 SM엔터테인먼트와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 롯데월드+엑소 '콜라보 효과' 톡톡

## 관광시장 글로벌전략 '콜라보 마케팅'

포토존·팝업샵 조성···국내외 방문객 증가 에버랜드-오리온 '매직 쿠키 하우스' 오픈

'1+1=3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는 지난해 10월 아이돌 그룹 엑소(EXO)를 모델로 발탁했다. 인기 연 예인의 모델 기용은 테마파크에서는 일상적 인 일이지만, 롯데월드와 엑소의 경우는 달랐 다. 롯데월드는 엑소가 출연하는 CF 외에 각 멤버별로 별도의 스페셜 영상을 제작해 이를 유튜브와 같은 SNS에 공개했다. 또한 파크 곳 곳에 엑소의 포토존을 조성하고, 내부에는 그 들의 테마 상품을 판매하는 팝업샵을 오픈했 다. 12월 엑소가 새 앨범 '싱 포 유'(Sing For You)로 활동을 재개할 때는 파크 내 가든 스테 이지에서 컴백 무대를 열었다. 요즘 관광산업 에서 주목하는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의 좋은 사례이다.

'콜라보레이션 마케팅'(collaboration make ting)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기 업들이 제휴해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소비자를 공략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여행·레 저 기업에서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주목하는 것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유치 경쟁에 서 콘텐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 다. 롯데월드도 엑소가 속한 SM엔터테인먼트 와 제휴한 것도 새로운 시장 개척의 전략적 목 표가 있기 때문이다.

롯데월드 마케팅부문장 권오상 상무는 "엑 소를 통해 본격적인 해외광고를 처음 실시했 다"며 "내수뿐 아니라 글로벌 마켓에서 롯데 월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를 장기적으 로 외국인 방문객 증대로 이어가는데 이번 콜 라보레이션 마케팅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 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롯데월드는 엑소의 모 델 기용 이후 파크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 중 10대~20대 젊은 소비자의 비중이 눈에 띠게 늘어나 고무적으로 여기고 있다.

테파파크 에버랜드와 제과기업 오리온도 지 난해 10월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진행했다. 에 버랜드 내에 오리온의 제품 테마를 활용한 '매 직 쿠키 하우스'를 오픈했다. 동화 속 과자의 집 을 모티브로 제작한 이 어트랙션 안에는 오리 온의 초코파이, 고래밥, 젤리밥, 초코송이, 닥 터유 등의 다양한 제품 조형물을 장식했다.

그런가 하면 롯데호텔이 새로 론칭한 부티 크형 호텔 'L7' 명동점은 뷰티 아티스트 정샘 물과 손을 잡고 호텔 투숙객에게 메이크업이 나 헤어 스타일링을 도와주는 '뷰티 컨시어지' 를 운영한다. 화장품과 각종 패션샵이 몰려있 는 명동에 위치한 호텔의 위치 특성과 인기 스 타의 단골샵으로 해외에도 유명한 정샘물의 브랜드 가치를 접목한 시도이다.

이외에 소니 픽쳐스와 제휴해 호텔 라운지 를 신작 영화 '몬스터 호텔2' 캐릭터로 꾸미고 라운지에서 1편 상영과 각종 캐릭터 체험 프로 그램을 운영한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윈터 무 비 펀'패키지, 생활 아티스트 이효재가 제천에 머물면서 리조트 고객을 위한 다양한 티칭 클 래스를 운영한 리솜 리조트도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의 좋은 사례이다.

오리온 이영균 홍보이사는 "테마파크 에버 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은 제품 구매에 한정됐 던 우리의 소비자에게 전혀 다른 형태의 브랜 드 체험을 제공하고 그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다"며 "관광산업과 제과 업의 기업이 함께 윈-윈하는 좋은 석세스 스토 리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 '찰싹찰싹' 파도소리 들으며 갈맷길 걸어볼까

## ■ 부산지역 겨울철 걷기 좋은 곳

방한복과 신발 등 든든히 준비만 한다면 겨울 여행은 다른 계절에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을 준 다. 전국적으로 조성된 둘레길 등의 트레킹 코 스를 걷는 것은 한 겨울의 낭만을 즐기기 좋은 힐링투어이다. 대한민국 걷기여행길 종합안내 포털(koreatrails.or.kr)에 등록된 전국 600여 개 길, 1600여개 코스 중 겨울철에 적합한 부산 지역 걷기여행 명소를 꼽았다. 김재범 전문기자

#### ① 갈맷길 1-2코스 (부산 기장군)

고산 윤선도의 유배지 죽성, 4월 멸치축제가 열리는 대변항, 연오랑세오녀 전설의 오랑대, 기장 팔경의 하나인 시랑대, 동해 최남단 관음 성지인 용궁사 등의 명소가 있다.

기장군청~죽성만~대변항~오랑대~해동용궁 사~송정해수욕장~문탠로드

#### 2 갈맷길 4-1코스 (부산 사하구, 서구)

남항대교를 건너며 바라보는 스카이라인과 남 항의 홍등대와 백등대, 안쪽 원도심과 자갈치 인근의 경치가 매력이다.

남항대교~송도해수욕장~송도해안볼레길~암 남공원 입구~감천항

#### ❸ 갈맷길 5-2코스 (부산 강서구)

천가교~천가초등학교~소양보육원~연대봉~ 대항선착장~대항새바지~어음포~동선방조 제~정거생태마을~천가교

#### ❹ 갈맷길 7-2코스 (부산 금정구)

금정산성 북문 고산습지에서 계곡을 따라 내 려오면 금어동천, 비석골 서어나무 숲을 호젓 이 걷는 옛길이 펼쳐진다.

동문~북문~범어사~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스 포원파크~부산톨게이트~상현마을

## **⑤** 갈맷길 8-1코스 (부산 금정구, 수영구)

남녀노소 누구나 다닐 정도로 평탄하고 수영 강과 회동호의 경관이 뛰어나다.

상현마을~오륜대~명장정수사업소~동대교~



▲절영 해안산책로

## ❻ 구포 무장애 숲길 (부산 북구)

폭 1.5~2.0m의 데크로드로 조성해 전동스쿠 터나 휠체어, 유모차가 이동하기 쉽다.

구포무장애숲길주차장~선강약수터~제2전망 대~제1전망대

#### ⑦ 가람낙조길 (부산 북구)

진흥사 앞(금곡4주공단지)~낙동강전망대~화명수 목원~율리패총~전망대~진흥사 앞

### ③ 절영 해안산책로 (부산 영도구)

해양수산부 선정 전국 52개 걷기 좋은 해안길, 해안누리길 중 하나.

절영해안산책로관리동~모자이크벽화타일로~ 무지개분수대~출렁다리~절영전망대~7.5광 장~중리해안/산책로~감지해변길~태종대

#### ❷ 초량 이바구길 (부산 동구)

부산역~남선창고터~(옛)백제병원~담장갤 러리~동구인물사담장~우물터~168계단~ 김민부전망대~당산~이바구공작소~장기려 더나눔 ~유치환 우체통~까고막

#### ① 기장 해안산책로 (부산 기장군)

연화리 포구, 대변항, 죽성항 등에서 어민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 가족단위 이용객들에 게 적합하다.

공수마을~해동용궁사~수산과학관~오랑대~ 서암마을~연화리포구~대변항~'친구'촬영기념 비~죽성항

#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전년 대비 100만명 감소

★효과100%후불제★

예상대로 전국을 강타했던 메르스 사태의 여파는 강했다.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방문객이 지난해 전년 대비 100만명이

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의 '2015 한국관광통계'에 따르 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1323만1651명 으로 2014년의 1420만1516명보다 6.8%, 100만 여명이 줄었다. 당초 우리나라가 2015년 목표 로 삼았던 외래 관광객 1550만명에는 227만명 이나 미달했다.

월별 외국인 방문객 추이를 보면 역시 6월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의 여파가 감소에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는 누적 관광객 증가율이 10.7%로 꾸준한 증 가를 보이다가 메르스 사태가 터진 6월부터 8월까지 40%대의 급격한 감소를 기록했다. 이 후 범정부차원에서 방한시장 회복을 위한 다 양한 노력을 펼쳐 9월 이후부터는 방한객 수가 전년 수준을 회복했지만 연간 방문객 수에서 는 결국 큰 감소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2.3% 감소), 일본(19.4% 감소) 등 주요 방한시장 대부분이 전년보다 방 문객이 줄었다. 특히 대만(19.5% 감소), 태국 (20.4% 감소), 싱가포르(20.4% 감소) 등 동남 아 국가들이 20% 전후의 방한 관광객 감소를 기록했다.

또한 2015년 해외여행객은 저비용항공 노선 증가와 대체 공휴일 영향으로 전년 대비 20.1% 증가한 1931만여명이 출국을 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외국인 방문 객이 1900만명 후반으로 전년대비 40% 넘게 늘었고, 그중 중국인 관광객은 460만여명으로 110%나 증가했다. 김재범 전문기자

# 문체부 '대구·전남·수원·서천' 시티투어 지원

대구시, 전라남도, 경기도 수원시, 충청남도 투어 고유 브랜드인 '남도 한바퀴'를 다른 지역 서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6년 지방 자치단체 시티투어 지원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시티투어는 지역의 특색 있는 주요 관광 명 소를 안내 서비스가 포함된 관광순환버스로 돌 아보는 관광 콘텐츠이다. 대구는 평화시장 닭 요리거리, 동성로, 근대문화골목, 안지랑 곱창 골목 등을 순환하는 '도심순환코스'와 팔공산, 비슬산, 낙동강 등 외곽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테마노선을 동시에 운영한다. 전라남도는 시티 잠재고객과 10~30대 신규 고객들이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수원은 '2016 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화성 행궁을 중심으로 시티투어 코스를 개편하고 팔달문시장 등의 전통시장과 연계해 볼거리,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서천은 한 산모시문화제(6월), 한산소곡주 축제(10월)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한 '메가시티투어'를 운 김재범 전문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